
테마 2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강사 스피치자료

※회합 당일의 배포자료를 일부 가공(추가·발췌)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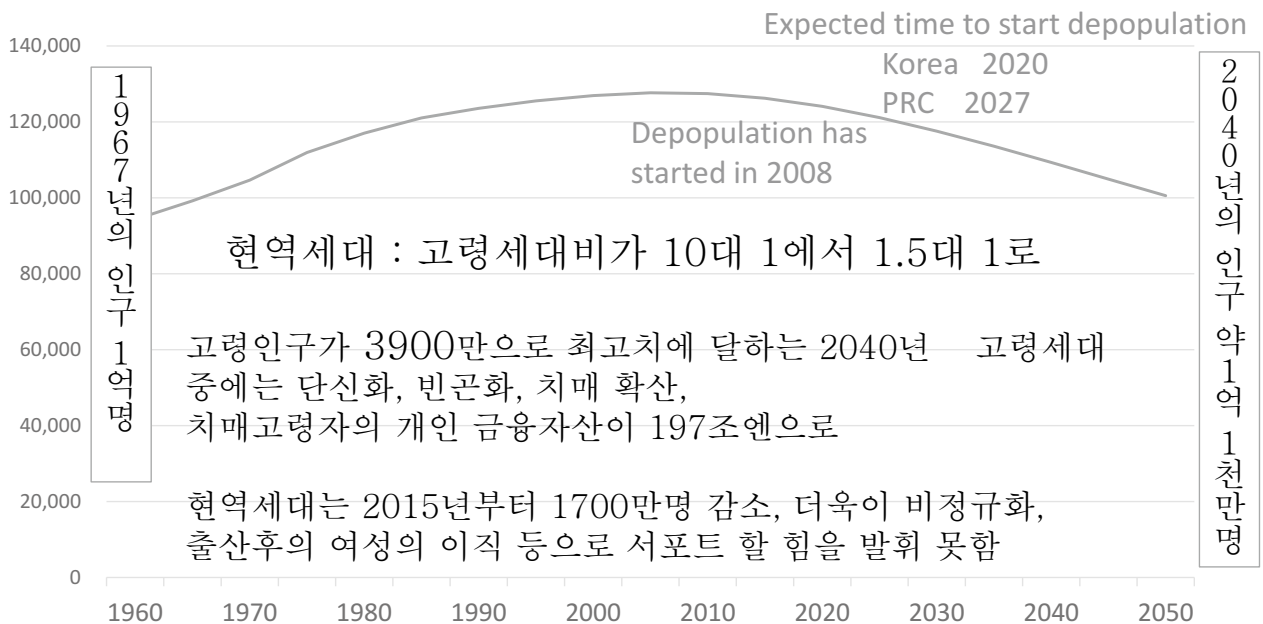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테마2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역공생사회와 지방정부의 과제 건강인구를 어떻게 늘릴까?



미야모토 타로(주오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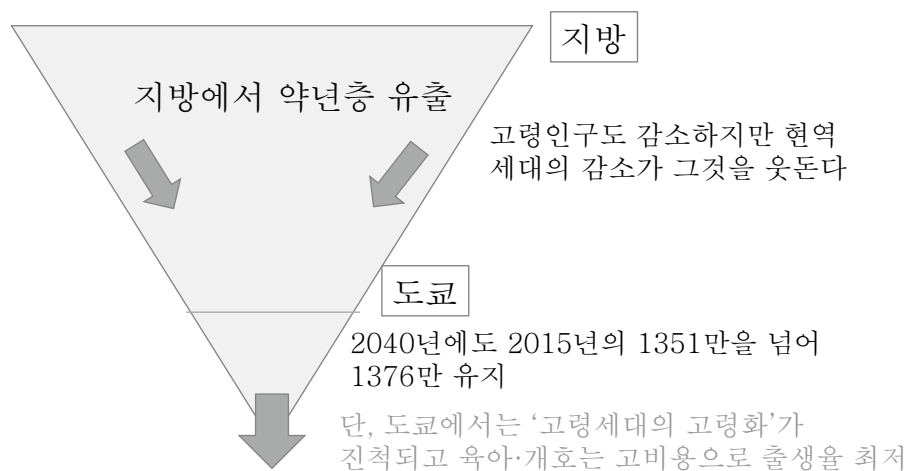
1 「과제선진국」 일본에서 진행되는 세대간의 불균형



未富先老? Short time to prepare for aged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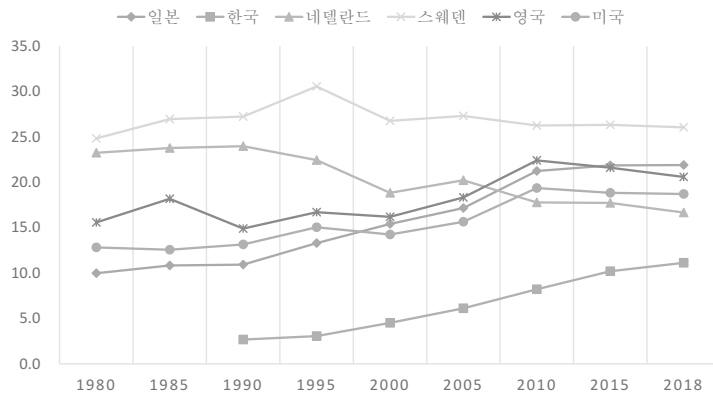
	aged society with 7% of aged population	aged society with 14% of aged population	
France	1864	1990	126years
Sweden	1887	1972	85
Japan	1970	1994	24
Korea	2000	2018	18
PRC	1999		

2 지역간의 불균형도 확산 젊은이가 집중한 도쿄는 출산율 최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2017년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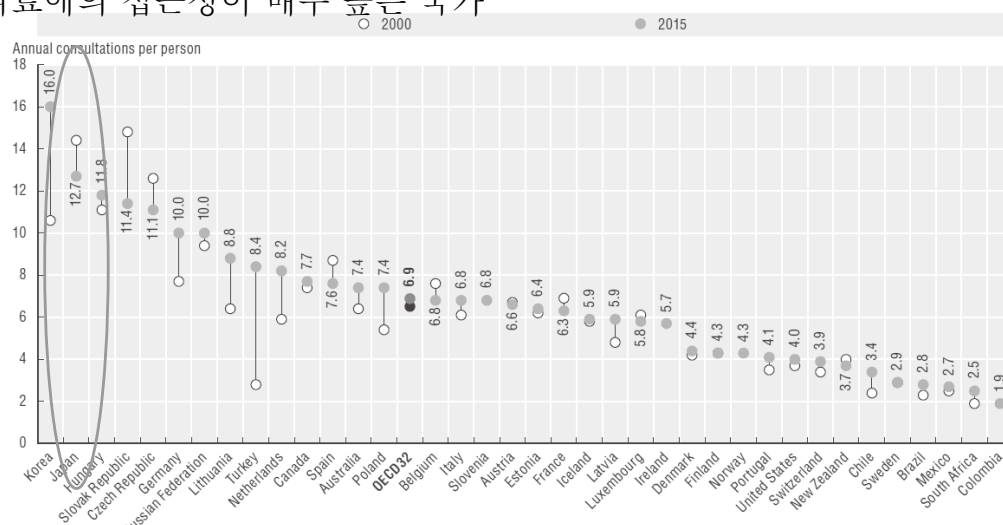
3 GDP 대비로 유럽의 복지국가를 제치기 시작한 일본의 사회보장지출인데...



GDP 대비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상대적 빈곤율(15.6% 2015) 등으로 본 지역의 고립과 곤궁은 해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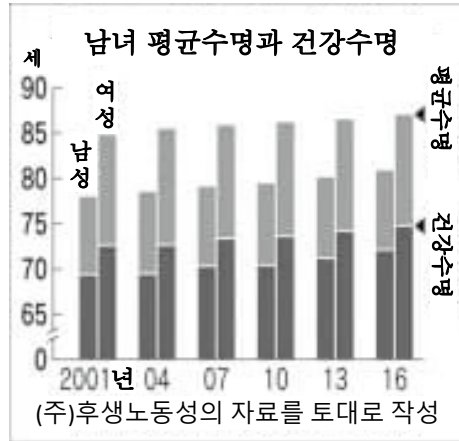
5 모두 보험체제 하에서 발전한 일본의 의료 국민 1명당 연간진료건수는 극히 많고 의료에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국가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4951>

6 그러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남성
평균수명 80.98세
건강수명 72.14세

여성
평균수명 87.14세
건강수명 74.79세



도표는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8년 3월 9일

7 지방정부의 과제 「건강인구」를 늘리는 것

사회보장의 초점은 국가에 의한 현금급부에서 지방정부에 의한 서비스 급부로

중요한 서비스는 의료와 간호의 연계(Cure에서 Care로 사회적 처방전 Social Prescription) 취학전 교육(보육) 고령자, 장애인, 젊은이의 취업지원 등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서비스

자립지원 사회적포섭 Social Inclusion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라고 불러왔던 시책인데 자립이란 건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즉시 취업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도 많다

8 「건강인구」를 위한 복지전환

지금까지의 복지

기본적
이념

보호하는 복지 「껍질의 보장」
Security under shell
전형적 리스크에의 대응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지방정부의
과제

수직적 행정

보호하는 장(시설 등)의 확보
(행정중심)

앞으로의 복지

나라현 건강수명 일본제일로

건강하게 하는 복지 「날개의 보장」
Security by wing
오더메이드 지원

경주시: 오더메이드형 복지팀의 출장보건복지팀으로의 전환

수직적을 초월한 포괄적 상담지원

의료에서는 후쿠이현 사카이시의 주치의 지정, 70%의 개업병원이 재택 대응

활약의 장(다양한 참가·취업기회)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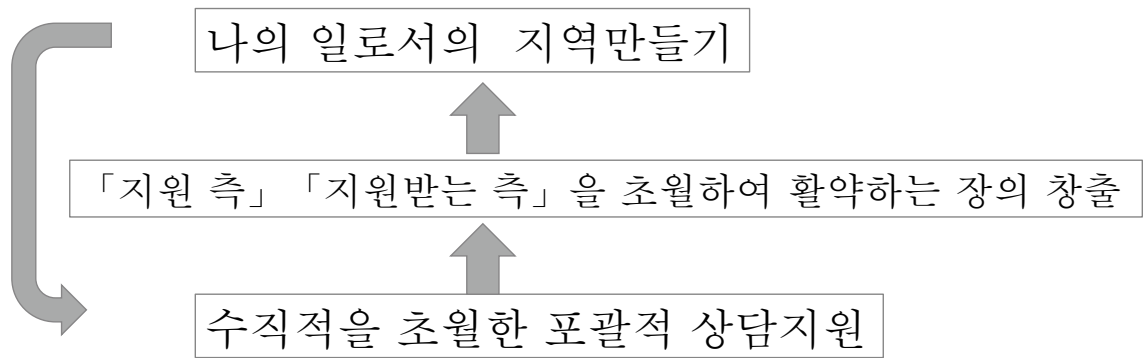
고후시 이키이키 살롱 139개소 고세시 가요이노바 92개소

(행정과 민간의 연계 공적재원의 준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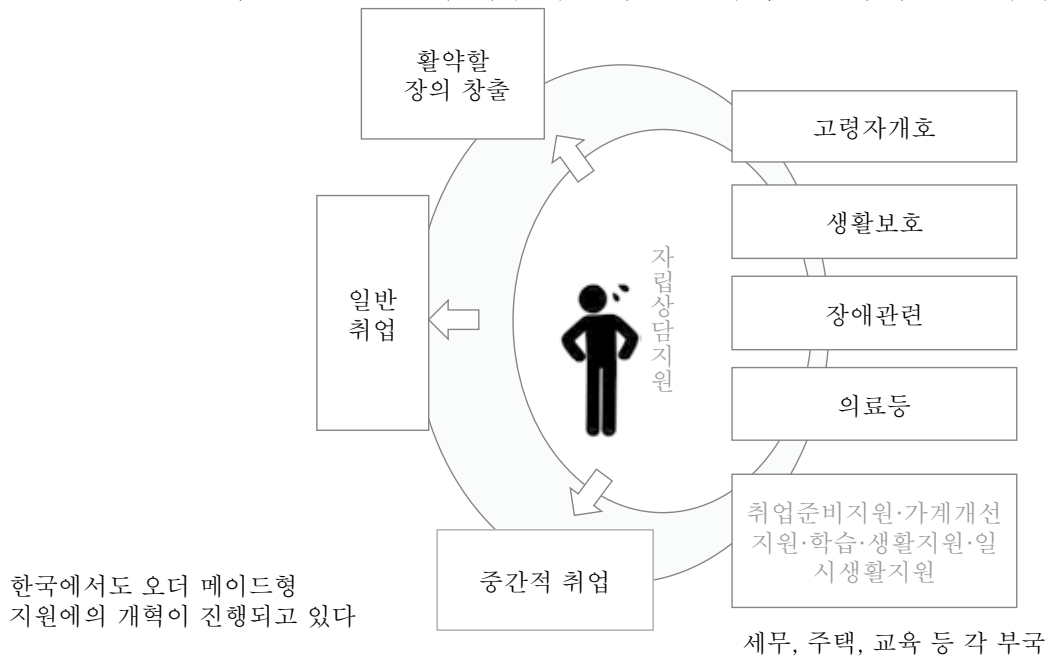
9 「건강인구」 늘리는 지역으로 일본정부가 제기하는 「지역공생사회」 inclusive local community라는 비전

- 「제도·분야별 『수직적』이나 「지원 측」 「지원받는 측」이라는 관계를 초월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나의 일』로서 참획하여 (중략) 지역을 더불어 만들어가는 사회」(「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2017년 2월)
- 2016년 각의결정 현재 「지역공생사회 추진검토회」에서 복지법 개정을 위해 심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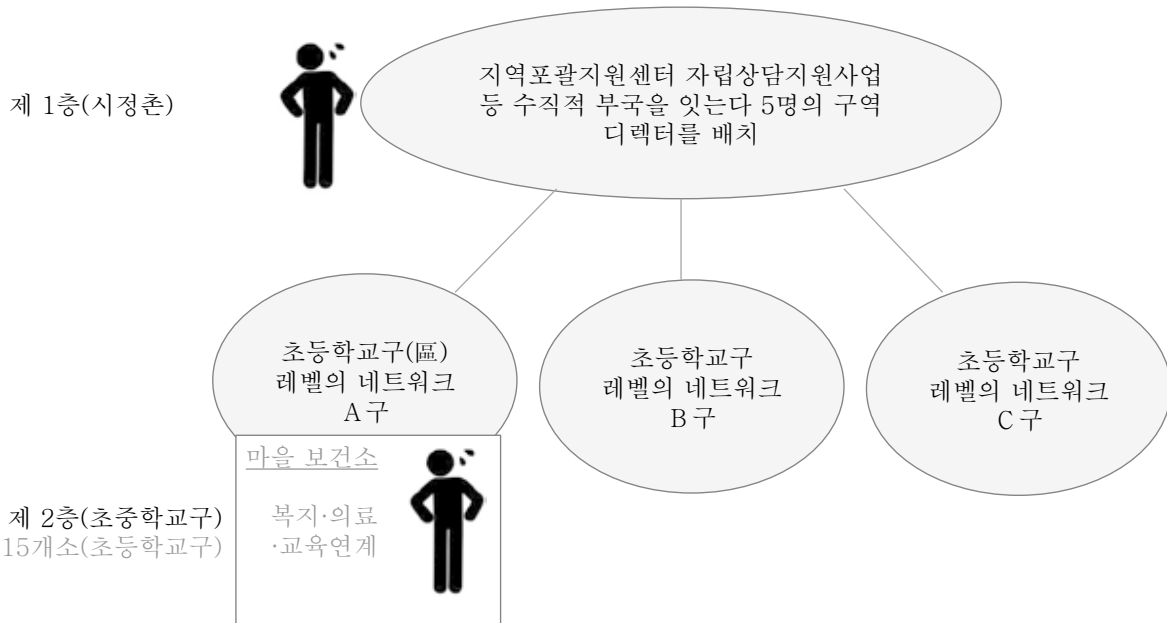
10 「지역공생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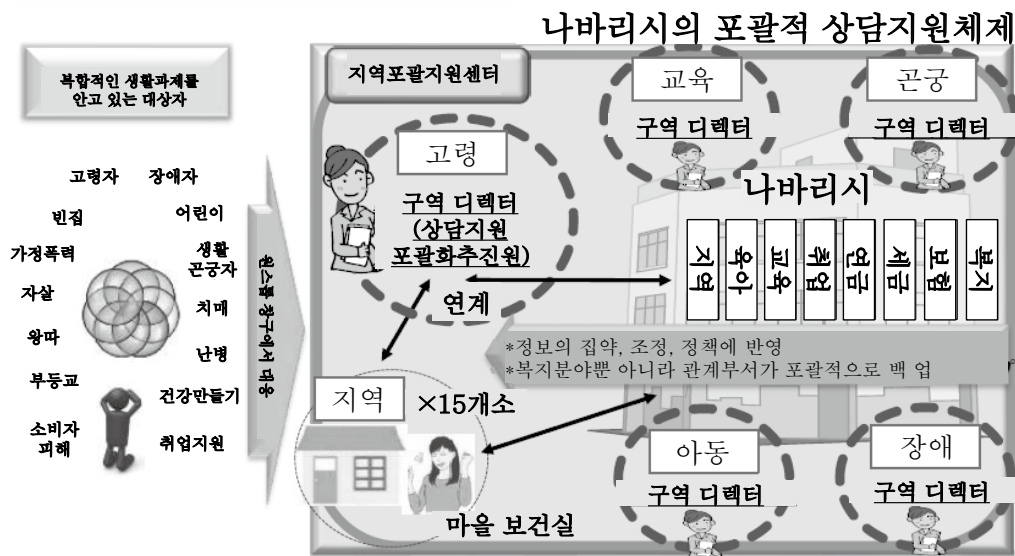
11 2015년 실시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는 지역공생사회 만들기의 첫걸음



12 포괄적 상담지원의 형태 미에현 나바리시(인구 약 8만)의 경우



13 나바리시의 포괄적 상담지원체제



출처 나바리시 자료에서

20 오더 메이드 취업을 만든다 유니버설 취업



일반임금직원



최저임금직원



통근자
(Commuter)

↓
업무의 분해
발췌하여
효율화

지바현 사회복지법인 생활클럽 '가케노무라' 사업본부

시즈오카현 후지시에서는 '유니버설 취업추진조례' 「(2017) 오사카부에서도 검토중
은둔형 외톨이 젊은이가 은둔한 채 일하는 주식회사 '우치라 메차 고마카잉테」(IT기업)

21 지방정부가 기업에 오더메이드 취업만들기를 촉구

오사카부 도요나카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300~400기업에서 받은 구인정보를 모은다

구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고령, 곤궁, 보험수납과 등의 창구에서 소개된
사람들과 기업에 동행, 일하는 법을 개별교섭하여 커스터마이즈

미에현 도바시에서는 여관업 일을
업무분해하여 뽀띠 근무 카탈로그에



도바시의 뽀띠 근무 카탈로그 도요나카시의 생활관

정리

- ‘과제선진국’ 일본입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건강인구’를 늘리는 것
- ‘껍질의 보장’에서 ‘날개의 보장’으로 복지와 의료의 전환이 필요
-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는 ‘수직적을 초월한 포괄적 지원’과 ‘활약할 장의 창출’
-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공생사회’ 비전은 새로운 지방정부의 과제에 맞춰 행정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